

# 민속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

- 프랑스 에코 뮤지엄 개념 도입을 통한 외암 마을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대학원  
여가관광개발학과 석사과정  
송화성, 송나균

## 요약

민속마을은 우리나라 역사의 단면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간직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일구어진 주민들의 삶과 그 과정에서 쌓인 문화의 총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 개발에 있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생활과 직결되는 민속마을은 엄격한 원형보존보다는 활용의 개념이 적용된 보존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견 중 하나인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와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자연 및 문화유산을 현지의 환경과 더불어 보존, 육성 전시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보존형 야외박물관’의 개념”이다. 이는 지역유산을 현지에서 보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반박물관과 차이를 가지며, 이 때문에 국내·외 자치단체, 도시 및 계획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민속마을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모델의 틀로서 에코뮤지엄 모델 선정하여 이를 국내 민속마을 중 적용가능한 대상지에 적용함으로써 대상지인 외암마을을 마을의 보유자원을 토대로 단위 문화재적 접근방식을 타파하여 전통이 묻어나는 마을로 조성하였다.

연구 결과 외암마을의 정비 및 보존계획은 양반마을이고, 마을의 도로가 나뭇가지로 뻗어가는 형상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여 사대부의 일생을 뿌리에서 뻗어나가듯 길을 따라 전개하였다. 개념 도입 모델이었던 에코뮤지엄은 코어뮤지엄을 중심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듯 위성박물관을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전체적인 전개를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특히 ‘삶’부분은 마을의 고택을 위성박물관으로 활용, 개발하여 중점 개발하였다. 에코뮤지엄 개념 도입시 외암마을을 개발이 최소화되는 복원 및 탐방의 공간과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탐방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이원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에코뮤지엄에 대한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 대내적으로는 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으로써의 에코뮤지엄을 인식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 가능한 향토문화상품의 터전을 마련하여 민속마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의의가 있다.

# 목 차

제 I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b>제 II 장 외암마을의 현황 및 여건분석</b>	<b>3</b>
제 1 절 입지 여건 및 자연환경	3
제 2 절 마을의 형성과 풍수적 특색	3
제 3 절 마을의 자원	6
제 4 절 마을의 현황분석과 과제점 도출	8
<b>제 III 장 기본구상</b>	<b>11</b>
제 1 절 비전도출체계	11
제 2 절 SWOT 분석	11
제 3 절 키워드 설정	12
제 4 절 컨셉 및 개발목표 설정	12
제 5 절 Eco-Museum	13
<b>제 IV 장 마을 정비 및 보존계획</b>	<b>16</b>
제 1 절 기본방향	16
제 2 절 세부계획	17
제 3 절 시설배치계획	22
제 4 절 교통 동선계획	24
<b>제 V 장 마케팅 및 운영계획</b>	<b>25</b>
제 1 절 기본방향	25
제 2 절 마케팅 전략	25
<b>제 VI 장 결론</b>	<b>28</b>
참고문헌	30

## 제 I 장 서론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정신적 여유와 기쁨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대대로 내려온 그 민족의 행로와 함께 한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국의 것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지금 그것을 보존과 개발이 병행되는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민속마을이다. 민속마을은 우리나라 역사의 단면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간직하며, 자연 환경 속에서 일구어진 주민들의 삶과 그 과정에서 쌓인 문화의 총체를 볼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 민속마을 지정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보다 전통적인 것을 요구하는 관광객과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는 주민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전통 민속마을의 보존은 전통건축이라는 유형자원의 보전에 국한되어 진행되고 있어 무형자원의 소중함이 간과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 민속마을의 효율적인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주민과 방문객의 갈등, 단위 문화재 중심의 접근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 대안 중 하나로 ‘에코뮤지엄’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와 자연 및 사회 환경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자연 및 문화유산을 현지의 환경과 더불어 보존, 육성 전시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보존형 야외 박물관’의 개념으로 지역주민이 앞장서 지역유산을 현지에서 보존한다는 점과 현 민속마을의 문제점에 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프랑스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치단체, 도시 및 지역계획가 등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민속마을 중 한 곳인 ‘외암마을’을 대상지로 삼아 이 곳의 이미지에 맞는 테마를 정하고 이에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하여 마을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인 외암마을의 문제점과 잠재력을 파악하고 현황에 맞는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하여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발전시킨 미래지향적 개념의 민속마을 정비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민속마을을 분명한 테마가 부여된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민에게 전통 문화를 맛보게 하고 문화 수용 욕구를 충족시켜주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곳으로의 이미지 확립을 통하여, 외암 마을을 아산시의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추역할을 하는 곳으로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속마을은 6곳이 지정되어 있고 각각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개발방식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이나 활용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보존 중심 민속마을의 대표형인 외암 마을을 사례연구의 모델로 선정하여 그 공간적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민속마을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규명하는 이론적 연구이기보다는 보존정비계획의 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적용적, 실천적 연구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에코뮤지엄을 대안의 하나로 먼저 정한 뒤 이 개념의 도입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치중하므로 그 가치평가나 구체적인 비용편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하겠다.

본 연구의 범위는 크게 나누어 조사 분석 과정과 정비 및 보존계획으로 나누어진다. 조사 분석과정에서는 이 마을의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의 현황분석을 통해 마을의 현실과 문제점을 짚어본 뒤 마을 정비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와 함께 관련된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마을 정비 및 보존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해외 사례는 문헌 자료를 통한 사례조사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특히 그 개념이 도입될 ‘에코뮤지엄’은 프랑스에서 지역경제 재건을 위해 나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므로 이의 도입을 위해서는 그 개념 및 적용 범위를 정확히 해주어 적용 시 혼란을 피하기로 한다.

마을 정비 및 보존계획은 둘로 나누어 정리된다. 먼저, 현황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 내 주거시설과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비 기본 지침과 대안을 마련한다. 둘째, 마을 특성에 맞는 테마를 정해 이를 중심으로 ‘에코뮤지엄’개념 하에 방문

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주민의 소득증대, 관광자원화를 위한 홍보전략, 마을 내 공가(空家)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 외암 마을 관광자원화 방안이 모색된다.

## 제 II 장 외암마을의 현황 및 여건분석

### 제 1절 입지 여건 및 자연 환경

외암마을은 충청남도 아산군 송악면 소재지에 인접한 전형적인 집성촌이다. 온양으로 부터는 남쪽으로 8km의 거리이고, 옛 조서시대시흥역이 있었던 역말마을이 지금의 송악면소재지인데 이 일대의 영산이라 일컫는 설화산 서남쪽 기슭 평탄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 차령산맥이 아산군의 동남쪽을 가로지르고 이 줄기를 따라 광덕산, 태화산, 망경산, 봉수산들이 위치하여 있고, 차령의 주봉인 계룡산과 조루산 다음으로 높은 광덕산은 군의 동남에 위치한 송악면까지 뻗어 있다.

마을의 지형이 마을 동구(洞口)가 낮고 동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서저동고(西低東高)형상으로 약한 구릉지에 배치하였다. 마을 입구의 물(다리)을 건너면서 형성된 길을 따라 독특한 공간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형상은 평면적으로 타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 가운데 안길이 있고, 좌우로 샛길을 뻗치는 고살을 형성-마치 나무줄기를 따라 작은 가지가 뻗어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것과 같은 자연 형태와 같은 배치를 나타내고 있다.

외암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 236호로 지금은 총106가구,302명(남 160, 여 142), 제 65호의 민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이들 중 넓은 마당과 정원을 갖추고 여러채의 목조기와집을 갖춘 큰 규모의 고가들이 있고, 그들 사이사이에 작은 규모의 主家들이 섞여서 자연스러운 취락군을 이루고 있다.

설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이 마을의 남측을 감싸고 내려오면서, 강당골에서 아산시 쪽으로 흘러가는 근대골내와 마을의 입구에서 만나 온양천을 이룬다. 마을 주변은 대부분 경작지이며 마을 입구에는 소나무 수림대가 조성되어 있다. 이는 아름다운 숲에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이 마을 집들은 모두가 높은 돌각담으로 둘러쌓여 돌담길이 온 마을에 이어져있고 , 수림이 우거져서 골목길은 고풍스러운 풍경을 자아낸다.

### 제 2절 마을의 형성과 풍수적 특색

#### 2.1 마을의 형성과정과 역사



면서 인간적인 건축요소가되는 것이다. 외암마을의 구성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물은 자연적인형태로서의 물과 다른 하나는 인공적인 형태로서의 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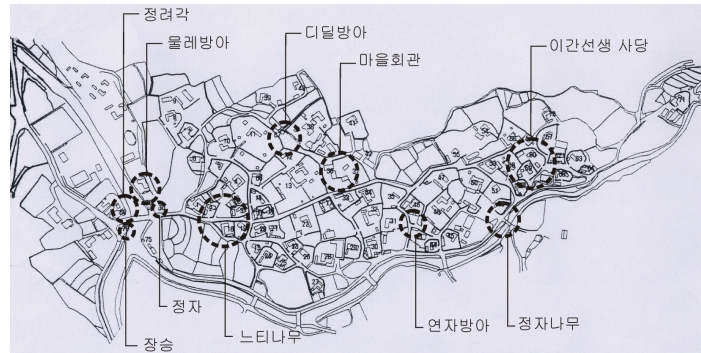
자연적인 형태로서의 물은 설화산에서 흘러내려오는 하천이 마을의 남측을 감싸고 내려오면서, 강당골에서 아산시 쪽으로 흘러가는 근대골내와 마을의 입구에서 만나 온양천을 이룬다. 다른하나의 인공적인 물은 뒷산(설화산)에서 흘러내린 냇물이 작은 溪류로 인도되어 마을 대부분 집들의 내부를 관류하도록 한 것이다. 설화산이 품고 있는 화기를 누르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유도된 것이라 하는데 지금 마을집들의 생활용수와 소화수는 물론 정원의 치에도 응용되어 곡수와 연못의 수원이 되기도 한다.



[그림 II-3] 외암리 풍수도

### 2.2.3 공동시설의 배치

반촌의 배치구성에 있어서 공동체적 시설물에는 교육적인 시설, 의례·신앙적인 시설, 휴식시설, 생활부대시설이 있다. 교육시설로 외암 이간 선생이 후학들에게 강학하기 위하여 세운 觀善齋가 마을에서 남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강당골에 위치하여 있고 간접적인 교육시설로는 정려각을 마을 입구에 세웠다.



[그림 II-4] 공동시설 배치도

의례·신앙적인 시설로는 마을 안길의 거의 끝에 외암선생의 사당을 위치하게 함으로써 의례적 공간질서를 형성하게 하였고,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워 수호신으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하였음. 안길 초입에 위치한 느티나무는 매년 제를 지냄으로써 마을의 부정을 없애고 질병이나 재앙을 막아주는 상징적 공간이 된다. 휴식시설은 마을 입구의 정자와 남측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거의 끝부분에서 개천옆에 서있는 큰 정자나무이다. 이 장소는 주로 남자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며, 마을의大小事나 소식 또는 외부의 정보들이 교환되는 곳이다.

생활부대시설은 마을 입구에 있는 물레방아와 교수택 앞의 디딜방아, 그리고 참관택 앞의 연자방아가 있고 마을 중간에 있는 빨래터와 개천의 빨래터가 있음. 마을 부녀자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어 왔다.

### 제 3절 마을의 자원

#### 3.1 인물

외암 이간 선생은 조선후기 문신학자로 본관은 예산, 자는 공거(公擧), 호는 외암 외에 추월헌(秋月軒)이라고 하였다. 조선후기 대학자였던 권상하(權尙夏)를 스승으로 모신 8명의 학사(八學士)중 한 사람이다. 그는 관직생활보다는 학문과 글씨로 그 이름이 더 유명하다. 마을에는 외암 이간의 뜻과 학문적 위업을 기리는 사당이 있고 이곳에서는 매년 음력 3월 14일 불천위제사를 지낸다. 외암 선생의 묘소는 외암리 오른쪽 산기슭에 있으며 마을 입구에 신도비가 남아있다.

#### 3.2 문화유산

문화 유산	특 징
외암 이간의 묘소와 신도비	묘소는 외암마을의 서쪽 100여m 떨어진 구릉에 서향으로 위치해 있으며, 신도비는 외암마을 입구 다리를 건너기 전 오른쪽에 있음.
반석(盤石)과 석각(石刻)	반석은 외암마을의 입구에 있는 바위임. 반석이 내 바닥에 깔려 있고 마을쪽으로 '외암동천(巍岩洞天)과 '동화수석(東華水石)이라는 석각이 있음
열녀 안동권씨 정려각	외암마을의 입구 다리를 건너기 전 좌측에 위치하며, 안동권씨의 조카인 이득선씨의 부탁으로 1978년에 전원식씨가 글을 짓고 최병무씨가 글씨를 썼음.
용추(龍湫)와 석각(石刻)	용추(龍湫)는 송악면 강당리의 안쪽, 역시 아래 냇가에 있는 못으로 옛날에 용이 올랐다하여 용추라 불리는 곳으로 예전 외암리의 선비들이 세족(洗足)을 하기 위해 자주 찾았던 것으로 추측되며, 바위 이곳 저곳에 외암리 출신 선비들 이름이 새겨져 있음.
영암군수택 건재고택	옛 전적과 고문서, 간찰, 외암집 목판 등 많은 유물이 남아 있음 추사 김정희 글씨의 주련(柱聯)이 걸려 있음.

[표 II -1] 외암마을의 문화유산

### 3.3 자연유산

자연 유산	특 징
마을입구	마을 입구의 서쪽에는 마을 앞 개울의 수구막이 기능도 겸하고 있는 소나무 100그루가 마을을 병풍처럼 가려주고 있으며, 이 소나무 숲은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제 2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마을 숲' 부문에 선정되었다.
사랑마당	외암리 마을의 상류주택 사랑마당에는 상록수 위주의 식재가 되어있으며, 이는 수공간(水空間)을 중심으로 되어있다
상류주택정원	상류주택의 정원이나 수로 주변에 거닐면서 수시로 들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다양한 괴석(怪石)들을 배치하고 있다

[표 II -2] 외암마을의 자연유산

### 3.4 의례

전반적인 풍습과 민속은 충청도 일대의 그것과 같으며 서울의 세시풍속과도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음력 3월 13일 외암 선생의 기일과 음력 7월 1일과 동 8월 13일 두 부인의 기일에 외암선생의 묘제가 치러지고 있음. 현재는 규모와 형식면에

서 많이 간소화 됐으나 유교제례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원형의 복원이 필요하다

느티나무제	· 매년 정월 보름을 앞두고 제일(祭日)로 정해 마을 어구 중간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나무신에 제사를 올림
장승제	· 마을 어구에 있는 한 쌍의 장승 앞에서 매년 초에 제를 지냄 · 장승은 마을의 경계를 표시하는 경계신인 동시에 타지역으로부터 전염병의 침입을 막아주는 수문장 역할을 하므로 장승제는 마을의 건강과 주민의 복덕을 비는 여타의 제례행사와 같음

[표 II-3] 전래되어 온 마을 공동행사 - 부락제

### 3.5 식생활(전통음식)

식문화	특징
어죽(魚粥)	마을에서는 민물고기로 죽을 쑤어서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래 밤에 야참으로 즐겨 먹었다고 하나 지금도 봄부터 가을까지 청년회의를 열었을 때 참으로 먹는 일이 많다
연엽주(蓮葉酒)	조선 고종조 현감(縣監)을 역임하고 비서감 승(秘書監丞)을 증직(贈職)으로 받은 이원집(1829~1897)이 궁중에 있을 때 임금에게 올리던 술이라고 하며, 대대로 종부(宗婦)를 통해서 전수되었다 연잎을 넣어 빚는 술로, 이원집이 남긴 『치농(治農)』에 제조법이 전해지고 있다. 1990년 12월 31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11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참판댁에 거주하는 그 후손 이득선의 부인 최황규(崔晁圭)가 기능보유자로 되어 있다.

[표 II-4] 외암마을의 식생활

### 제 4절 마을 현황분석과 과제점 도출

경관분석, 주변 환경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회요인과 제약요인을 검토하고, 기회요인을 통해서 도입가능 활동 및 시설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 4.1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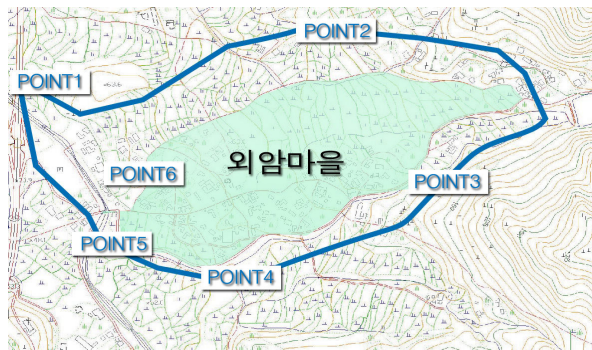
전통 민속마을임에도 불구하고 50%이상이 슬레이트 지붕이다. 전체적인 전통 경관 조성을 위해서는 전통재를 사용한 지붕정비가 요구된다.

창고, 축사 등 생활편의시설의 대부분이 현대식으로 지어져 전통경관을 저해하고 있고 전체적인 건물수에 비해 주민들을 위한 공공건물의 부족하다 또한 목조건물이 많아 철저한 화재관리가 요구된다

한와	초가	슬레이트	합석	돌기와	양기와	계
51	21	102	5	2	18	199

[표 II -5] 외암마을 건물 지붕 현황 집계

### 4.2 주요지점별 분석



[그림 II -5] 경관분석도


- 외암마을 중심으로 6개포인트 지정

#### ■ Point 1

구 분	경관조망	기획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내표지판 - 아산시 진입에서부터 외암마을로의 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내표지판의 정비가 필요함</li> <li>· 진입터널 - 외암마을 진입로가 도로 아래쪽에 위치하여 한눈에 알아볼 수 없으며, 터널부분의 시각 장애요소 있음</li> <li>· 마을입구 - 주변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입구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감정의 동요가 생기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터널을 상징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전환</li> <li>- 안내표지판의 정비</li> </ul>


[표 II -6] 경관분석 Point 1

#### ■ Point 2

구 분	경관 조망	기회요인
	·설화산- 마을의 조산으로 GOOD VIEW 제공 ·마을의 내부도로 - 전형적인 농촌 마을의 길	- PHOTO POINT로 활용가능 함 - 휴게공간 조성하여 방문객에게 여유를 줌


[표 II-7] 경관분석 Point 2

■ Point 3

구 분	경관 조망	기회 요인
	- 마을의 수입원 중 하나인 사슴 육골죽을 만들기 위한 사슴축사가 있음 - 축사가 경관을 저해,오폐수로 인한 악취로 방문객의 불쾌감 형성과 하천을 오염시킴	- 사슴육골죽은 아산시의 관광상품인 동시에 마을의 수입원이므로 이전만이 최선의 대책이 아님 → 관람시설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오폐수의 처리로 친환경적 하천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표 II-8] 경관분석 Point 3

■ Point 4

구 분	경관 조망	기회 요인
	- 마을의 외수로 - 외부도로 : 마을 안길에 비해 상당히 넓고 마을의 영역성을 확보해 줌 - 다리 : 주변농지와 연계수단 - 마을 건너편의 저수지	- 낮은 수심으로 친수체험공간으로 활용 가능(하천정비방안 모색) - 외부 도로를 마을 주민의 차량진입로로 제공, 관람객의 체험시설 공간 확보 - 전통적인 외관을 지닌 다리로 보수 - 배후의 저수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관 창출 가능 (가옥내부 전통정원을 재현)


[표 II-9] 경관분석 Point 4

■ Point 5

구 분	경관 조망	기회 요인
	- 마을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민속마을 안내소와 공중화장실 - 마을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 경관을 저해함	- 마을안내소와 공중화장실을 이전하여 공터 조성 → 방문객에게 체험시설 제공

[표 II-10] 경관분석 Point 5

■ Point 6

구 분	경관 조망	기회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구의 물레방아와 정자는 민속마을에 들어왔음을 강조 → 감정의 동요</li> <li>- 아름다움 숲에 지정된 송림지역은 마을의 장승과 함께 마을 입구의 영역성을 확보, 우수한 경관을 형성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관이 가장 우수한 지점임</li> <li>- 양호한 소나무 조림 지역으로 별도의 식생 조림 불필요</li> <li>- 관람객의 휴식놀이공간으로 유도 가능</li> </ul>

[표 II-11] 경관분석 Point 6

### 4.3 마을 기반시설

안테나, 가로등, 전기, 변전반은 전통경관을 저해하므로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효율적 처리가 필요하다. 마을 중심의 도로 포장재가 아스팔트이다. 이 역시 전통마을과 어울리는 소재로 교체해야 한다.

### 4.4 주거시설

대문 앞의 공간이 넓은 것으로 마을이 부유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마을의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농기계, 축사 등)는 민속마을 내에서 전통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마을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면서 이것들의 효율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 제 Ⅲ 장 기본구상

### 제 1절 비전 도출 체계

현재 외암마을이 갖고 있는 강점요인과 약점요인을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SWOT분석을 실시하였다. SWOT분석을 통한 외암마을의 비전설정을 위한 키워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키워드에 따른 컨셉과 비전 도출하였고 설정한 비전 실현을 위해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구상 방향을 정한 뒤, 비전을 전개시킬 방법론을 설정하였다.

### 제 2절 SWOT 분석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S1. 훼손되지 않은 자연경관(관광이나 활용 개념이 적어 전통자원 훼손이 덜함)	W1.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노령화

S2. 수도권, 주요도시에서의 접근성 양호

S3. 전형적인 농촌의 자연경관과 인문경관 보유  
(한 공간 내에 자연, 인문, 생활문화 공존)

S4. 풍수지리에 따른 마을배치로 명당임

S5. 반촌마을로서의 주거양식, 정원, 음식 등의  
전통문화가 현재까지 남아있음

S6. 주변 연계 관광지의 다양성

S7. 마을 개발에 대한 관심/주민 참여도 높음

W2. 기존 자원의 효율적 활용 미흡

W3. 경영 주체의 경영 마인드 부족  
(투자과 수익발생에 대한 우려)

W4.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

- 화장실, 주차장, 안내시설 등의 편의시설
- 농촌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의 부족

W5. 마을 주민(사생활 침해)과 관람객(전통성  
기대) 사이의 갈등

**기 회 (Opportunity)**

O1. 주 5일 근무제의 확산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로 인한 관광시장 확대

O2. 새로운 형태의 관광활동 요구로 인한 각종  
체험에 대한 관심 증대

O3. 도시민의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

O4.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지향

O5. KTX 개통으로 인한 충청 문화권의 급부상

**위 험 (Threat)**

T1. 지방의 재정과 인재 부족

T2. 인근의 수려한 볼거리로 인한 방문객의 분  
산 가능성

T3. 교통이 불편함(대중교통수단의 미비)

T4. 지역간 무한경쟁시대 돌입

T5. 성급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가능성

[표Ⅲ-1] 외암마을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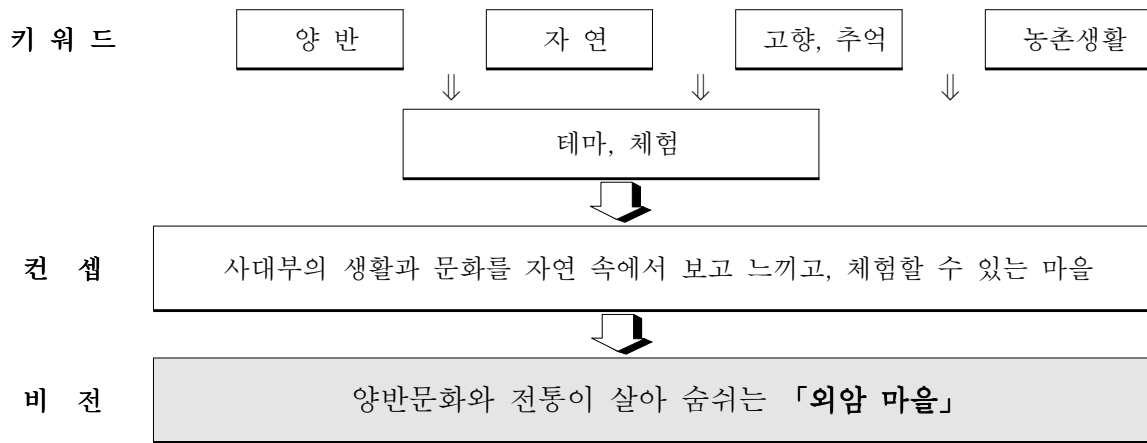
**제 3절 키워드 설정**

장승, 짚풀, 돌담길, 나뭇가지 형상의 길, 수로, 정원, 과거, 연엽주, 시간망각, 사당, 유교문화, 농사, 자연, 향수, 건강, 숲, 동심, 전통, 놀이, 느티나무, 선비, 설화산, 고택, 관혼상제, 누렁소, 모내기

- 양반 : 정원, 사당, 유교문화, 전통, 과거, 시간망각, 선비, 고택, 내수로, 관혼상제
- 자연 : 향수, 숲, 건강, 설화산, 나뭇가지 형상의 길,
- 고향, 추억 : 향수, 동심, 전통, 돌담길, 장승, 느티나무, 놀이
- 농촌생활 : 농사, 짚풀, 누렁소, 모내기

**제 4절 컨셉 및 개발 목표 설정**

**4.1. 컨셉설정**



[그림 Ⅲ-1] 외암마을 컨셉 도출도

## 4.2 개발 목표의 설정

첫째, 지역주민이 주도가 되어 지역의 생활 문화 및 자연·사회 환경의 발달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자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편익을 보장해 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둘째,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 및 최소한의 보편성을 갖춘 관광편의시설을 구축하여 전통이 묻어나는 마을을 느끼게 한다. 셋째, 개발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현지의 환경과 더불어 보존, 육성, 전시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함으로써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게 한다.

### 제 5절 Eco - Museum

#### 5.1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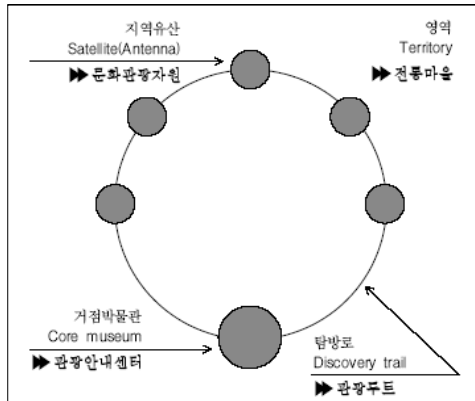
에코뮤지엄은 국가 주도식 개발로 인한 주민의 반발과 단위 문화재 보존식의 접근, 천편일률적인 테마로 인한 관광객의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는 기존 민속마을 개발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에코뮤지엄<sup>1)</sup>은 지역주민과 행정이 협력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와 자연환경 및 사회 환경의 발달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하고, 자연 및 문화유산을 현지의 환경과 더불어 보존, 육성, 전시하여 해당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 보존형 야외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다(新井重三, 1995). 에코뮤지엄은 기본적으로 지역유산의 보존, 조사연구, 전시 및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역유산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점이 전통적 박물관과 다른 특징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자치단체, 도시 및 지역계획가 등 마을 만들기 관계자들의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고,

1) 에코뮤지엄은 '에코뮤제(ecomusee)'로 불리기도 하며, 프랑스의 박물관학자 앙리 튀비에르가 주창하였다.

단순한 자연 및 문화유산 보호 운동이 아닌 지역 만들기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大原一興,1999).

### 5.2 에코뮤지엄의 구조



에코뮤지엄은 박물관, 유산, 참여로 구성되며 이 세 요소들이 상호 작용되는 것으로 지역의 과거부터 현재의 시간 속에 지역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났던 지역의 삶의 과정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보여준다. 에코뮤지엄에서의 박물관은 전통적인 박물관에서의 일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고가종택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2001)

[그림Ⅲ-2] 에코뮤지엄의 구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산업유산 등으로 현장성과 장소성을 살리는 동시에 현지에서 보전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과 향수의 주체가 되는 것이 전통박물관과의 차이점이다.

<b>영역</b>	→	에코뮤지엄의 단위지역(생활 문화권 기준으로 설정)
<b>거점 박물관</b>	→	에코뮤지엄 본부, 지역유산 및 접근방법 소개 안내하는 관광안내센터 역할
<b>지역 유산</b>	→	자연유산, 문화유산, 산업유산으로 구분 : 성격 상정
<b>탐방로</b>	→	실제 체험하는 관광루트

[표Ⅲ-2] 에코뮤지엄의 구조

### 5.3 기존 민속마을의 문제해결대안으로서의 에코뮤지엄

기존 민속마을의 문제점	에코뮤지엄 개념 도입
단위 문화제 보존식 접근	→ 지역 내 유산을 영역 그대로 현지 보존하여 환경 자체를 보존함
국가 주도형 마을 개발 방식 (주민의 반발, 관광객 중심의 개발)	→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개발의 전제가 되며, 주민 주도형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킴
마을의 총체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획일적인 개발에 치중 → 천편일률적인 테마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테마가 불분명함	→ 전형적 박물관으로의 활동인 수집,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다른 마을과는 다른 차별화된 자기 지역만의 고유 테마를 창출함

[표Ⅲ-3] 문제해결대안으로서의 에코뮤지엄

5.4 관련 사례

<p>스칸센 뮤지엄 (스웨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장 오래된 야외민속박물관으로 에코 뮤지엄의 전반적인 모델을 제시함</li> <li>- 스웨덴 전체를 미니어처로 지리적 방향과 위치에 따라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각 지방 문화와 자연환경의 특색을 쉽게 이해하게 됨</li> <li>- 농촌과 도시를 대비시켜놓았으며, 그 시대에 따라 자세하게 재현하여 한 시대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게 함</li> <li>- 고유 전통에 따른 민속공연을 계절과 기념일에 따라 실시함</li> </ul>
<p>윌리엄스버그 역사 민속촌 (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민지 수도라는 역사성에 따른 장소성을 지님</li> <li>- 주요 부분을 보존하고, 그 주변 지역까지 그 영역으로 규정하고 정비하여 식민시대의 생활상을 원형 재현하여 체험하게 함</li> <li>- 관련 책자의 출판과 다양한 homepage의 구축으로 홍보를 꾀함</li> </ul>
<p>메이지무라 박물관 (일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이지 시대라는 특정 시대의 재현을 통해 그 시대 생활을 총망라함</li> <li>- 과출소, 우체국 등 일상공간에서 시대적 생활양식을 배울 수 있으며, 그 자체가 기념품화 될 수 있음</li> </ul>
<p>알사스 에코 뮤지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스러운 모습의 보존을 통한 시대의 보존</li> <li>- 고장 전설, 전통 음식의 계승과 전통 축제</li> </ul>

[표Ⅲ-4] 에코뮤지엄의 관련사례

5.5. 시사점

공가의 활용	디어필드 역사마을	공가를 사들여 체험장, 소박물관, 전시장으로 개조 활용 ⇒ 외암리 내 8개의 공가(空家)있음 : 공예방, 체험장으로 공개 활용
체험 프로그램	캔터베리 셰이커 교도/ 스티 브리지 마을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마케팅 ⇒ 기존의 민속마을과 차별화 된 독특한 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지향형 축제사업	일본 사라카와 촌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축제 개최
	미국 Waterford	전통과 옛 이야기 알려주는 소책자 제공, 수공예품 직접 제작
	디어필드 역사마을	전통요리 시연 이벤트, 전통가구 수선에 대한 워크샵
민속 상품개발	디어필드 역사마을	건물모형 판매, 마을전경, 탐방로 묘사한 Carpet ⇒ 現 민속마을 기념품, 공산품 개발 미약 :외암리 기념품 → 참관택에 전승되어 내려온 연엽주 대 표 상품
	일본 오히타현 유후인 마을	“영화관 하나 없는 마을, 그러나 거기에는 영화가 있다”

[표Ⅲ-5] 에코뮤지엄의 관련 시사점

## 제 IV 장 마을 정비 및 보존 계획

## 제 1절 기본 방향

외암 마을은 양반마을이고 마을의 고샅(도로)은 나뭇가지가 뻗어있는 형상으로 마을의 중심으로 안길이 있고 안길을 중심으로 고샅이 형성되어 있어 마치 나무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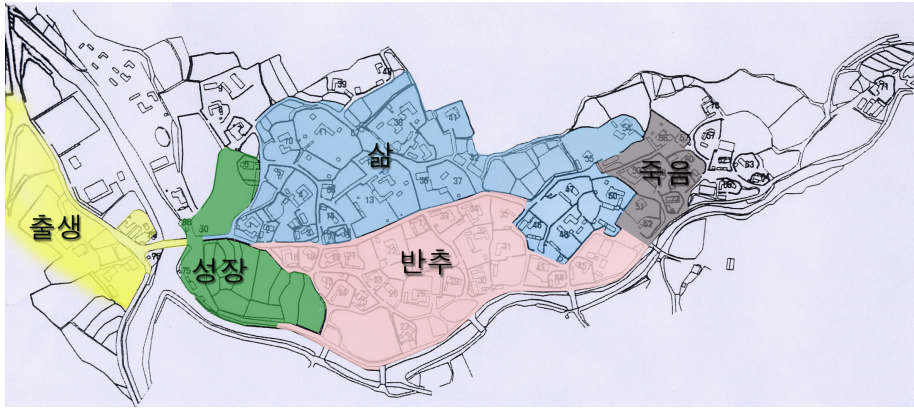
여기에 착안하여 사대부의 일생을 뿌리에서부터 뻗어가듯 길을 따라 전개하였다. 에코 뮤지엄은 코어 뮤지엄을 중심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듯 위성박물관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을 적용해 외암 마을이라는 장소에 사대부의 일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고, 마을 주변에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둠으로 관람 후 체험을 하게 하였다.

<b>출 생</b>	마을의 다리를 건너 진입함으로써 사대부로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실감해보는 <b>시간여행의 공간으로 개발</b>
<b>성 장</b>	유소년기 아이들의 생활을 놀이를 통해 보여줌으로서 아이들에게는 재미를,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느끼게 한다. 이로 인해 <b>어른과 아이가 하나되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개발</b>
<b>삶</b>	<b>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주는 총체적인 공간</b> 으로써 청소년기부터 장년기까지의 삶과 행사들을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b>죽 음</b>	사당과 종가를 중심으로 하여 죽음 뒤의 모습을 제례를 통해 <b>조선시대의 제례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개발</b>
<b>반 추</b>	마을 주변에 마을에서 관람했던 것들을 재현해 <b>오감을 통한 체험하는 공간으로 개발</b>

[그림 IV-1] 외암마을 기본 구상도

## 제 2절 세부계획

각각의 테마에 중핵박물관, 위성박물관의 기능을 부여하고 조선시대 사대부 마을을 재현함으로써 다른 민속마을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테마의 전개에 따라 프로그램과 시설을 배치하면서 신·구세대의 조화를 통한 자라나는 세대의 배움터를 조성하여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 교육과 놀이의 기능 강조하였다.



[그림 IV-2] 외암마을 구상도

## 2.1 출생 - 중핵 박물관

공간명	주요 시설물	주요 내용
양반지문 (兩斑之門)	• 굴방 터널 (시간 터널)	• 조선 시대로의 이입 - 터널을 현대와 과거의 경계선 상으로 정함으로 조선시대로의 여행을 준비시킴
	• 저자거리 조성	• 마을진입로에 장터 완벽하게 재현하여 영화세트장대여, 민속상품·음식 판매 →주민에게 경제적 실익을 안겨 줌
	• 거점 박물관	• 관광 안내센터이자 종합 박물관 → 마을내부에서는 불가능한 적극적인 관람, 체험이 가능
	• 입장권	• 입장권을 마패형식으로 만들어 말개수에 따라 활용 정도를 달리함 (테마파크의 자유이용권, Big5의 형식)
조선 시대로 당시로 떠나는 시간여행	• 시간의 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에 들어서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알리며 북을 치</li> <li>• 마을 입구나 마을 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종이나 북을 배치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3회 정도) 신청자를 받아 시간을 알리는 북을 칠 수 있게 함</li> <li>• 북을 치는 사람에게는 외암 명예주민 증명서를 발급함</li> </ul>
	• 미니어처 외암 투어	• 외암마을의 전통 모습을 모형으로 조성하여 방문자가 마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함

[표 IV-1] 중핵 박물관 구상표

## 2.2 성장 - 위성박물관 1

공 간 명	주요 시설물	주요 내용
동심의 세계 -자연과 하나되어 자라는 곳	• 계절에 따른 전통 민속놀이	•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를 계절별로 발굴함
	• 전통 농촌 체험장	• 1회성 체험이 아닌 신청자를 받아 직접 모내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심은 모에 풋말을 붙여 가을 추수 때까지 관리를 해줌
	• 외암 자연 학습장	• 논, 밭 에서 거머리, 올챙이 등의 관찰, 채집 활동 기회 부여

[표 IV-2] 위성 박물관 1 구상표

□ 계절에 따른 전통 농사의 재연

• 봄 (모내기)

- 파종에 대한 간단한 교육과 함께 모내기 전통 재현 행사와 더불어 체험행사를 실시함
- 신청자를 받아 직접 모내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이 심은 모에 풋말을 담에 가을 추수 때까지 관리를 해줌 ⇒ 소정의 관리비를 받음(회원제운영)
- 모는 작은 화분에 담아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모내기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증명서 발급함

• 여름(자연 체험 학습장)

- 학생들의 방학 중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함 ⇒ 논 등의 수공간에서 올챙이, 개구리, 거머리, 곤충 등을 관찰하게 해주거나 잡게 해 줌
- 곳곳에 원두막을 설치하여 전통적 여름 극복법을 알려주고 수박서리 같은 것을 영상물로 보여줌 ⇒ 등목, 수박서리, 모깃불 등을 통한 야간관광 상품 개발
- 허수아비 만들기 행사 ⇒ 가을맞이에 앞서 허수아비를 만들어 봄철에 심은 모를 관리하게 함

• 가을 (추수행사)

- 추수행사에 관광객 참여 유도하여 추수시 행해졌던 전통 행사 재연
- 관광객에게 직접 추수한 벼를 디딜방아에서 찧을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만든 쌀을 이용한 음식(ex. 떡)을 만들게 하여 조금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함
- 고구마, 콩 구워먹기 등
- 짚신 삼는 법 교육 → 짚풀 문화재와 연계하고, 직접 삼은 짚신은 기념으로 가

저갈 수 있도록 하게 함

• 겨울 (민속놀이)

- 겨울철 민속놀이 한마당 ⇒ 쥐불놀이, 논바닥 썰매 등 겨울철 농촌에서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를 발굴하여 민속놀이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하게 함

2.3 삶- 위성박물관 2

공 간 명	주요 시설물	주요 내용
전시의 공간 -조선시대 사대부의 생활과 문화	조망길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망이 좋은 곳에 마을의 유래,역사등을 안내표지판으로 stop point조성 →시선유도, 동선조절,정보전달의 기능</li> <li>• 풍수지리상의 혈자리 표시 → 혈을 밟으면 건강해짐 → 동선유도, 즐거움 제공</li> </ul>
	외암 가옥 위성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을 대표하는 가옥을 선정해 각 집에 맞는 테마를 부여하고, 이를 전시하고 관람하게 함</li> <li>• 각 저택마다 가옥 해설사를 두고, 해설자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에피소드를 제공함</li> </ul>
	신명나는 마당놀이공간 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른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 분위기 환기와 전환을 위한 공연 제공</li> <li>• 조선시대 유교 성년식을 재현하고, 성년이 되는 방문객에게 참여기회를 줌</li> </ul>
	유교문화 전수, 교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도, 서예 (건재고택의 추사체 탁본), 한복 입는 법 등을 교육시키고 이를 통해 유학정신을 맛보게 함</li> </ul>
	온돌 체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의 공가를 활용하여 온돌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학습장으로 조성</li> </ul>

[표 IV-3] 위성 박물관 2 구상표

□ 외암리 마을 가옥 위성 박물관

• 가옥 해설사

- 각 저택마다 해설사를 따로 두어 그 독립성을 보장 →자신의 경험과 연관된 식의 해설을 유도함으로써 차별화된 안내를 받게 함
- 원칙은 마을 주민(정확히는 집주인)으로 하되, 주변학교 학생을 교육시켜 사회 봉사 형태로 고용함 → 신·구세대의 차별화된 시각으로 마을을 바라보게 함
- 한 가옥당 하루에 2~3시간 개방하며 중간에 휴식시간을 두는 등의 시간제한과

당일 현장 예약형식으로 선착순으로 인원을 제한함으로써 혼잡을 피하고 주민의 사생활을 보호함(30분당 20명)

<p><b>건재고택</b> (역사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가집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b>문중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박물관</b>으로 개발</li> <li>- 종가로써 대소사를 처리하기에 문중이야기 소재가 풍부하므로 집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생활상과 집안에서 일어났던 가족사 등의 에피소드를 영상에 담아 관람객에게 보여줌</li> <li>- 영상물 관람 후 종부(宗婦) 등 집안의 내력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나와 가풍 등 본인이 경험한 집안 사나 생활면을 증언해주어 관람객과의 거리를 좁히게 함.</li> <li>-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추사체 등의 복사본을 통해 탁본하는 등 여러 체험거리를 찾아 체험장에서 행할 소재를 찾음</li> <li>⇒ 개별적 유물 또는 기억들을 꿰어서 건재고택의 역사를 만드는 일을 ‘전시’를 통해 전달하는데 최종 목적을 두었음</li> </ul>
<p><b>참 판 덕</b> (음식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엽주가 제조되는 집의 성격을 살려 전통 음식 문화를 보여주는 <b>전통 음식 박물관</b>으로 개발</li> <li>- 집안 전통 음식조리 과정, 연엽주 제조과정과 이와 관련된 집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생활상 등의 에피소드를 영상에 담아 관람객에게 보여줌</li> <li>- 영상물 관람 후 집주인이나 관련된 사람이 나와 본인이 경험한 전통 음식에 대한 에피소드를 증언하게 하여 관람객이 흥미를 돋우며, 마을 밖에서 행해질 음식조리체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li> <li>- 연엽주 시음과 안주 시식 등을 관람객에게 권유하여 자연스럽게 마을 음식을 맛보게 하여 전통음식 홍보를 꾀하며, 마을 밖에서 이를 판매함으로써 소비를 유도함</li> </ul>
<p><b>송 화 덕</b> (가옥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저택 중 유일하게 현재 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곳이므로 가장 전시의 영역이 넓으므로 가옥구조와 집안 정원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게 하는 <b>가옥 박물관</b>으로 개발</li> <li>- 건축이나 조경 등의 학문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가옥해설사가 되어 관람객을 안내함으로써 외암리 저택의 이해를 도움</li> <li>- 저택 내의 수로 자리와 공터를 이용하여, 휴식공간과 다도 체험장을 조성함 (단 이는 최소한의 개발만이 허용됨)</li> </ul>
<p><b>교 수 덕</b> (교육박물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의 교수가 나왔던 집이므로 교육자적인 성격을 강조하여 전통 윤리를 가르쳐주는 <b>교육 박물관</b>으로 개발</li> <li>- 마을 내 관혼상제 및 이의 추진과정 등을 영상물로 담아 상세히 설명해줌</li> <li>- 지방 쓰는 법, 옷고름대님 매는 법 등을 알려줌으로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움</li> <li>- 유학정신을 일깨우는 서당의 총체적인 부분을 담당함</li> </ul>

[표 IV-4] 외암 가옥 위성 박물관 구상표

### 2.4 죽음- 위성박물관 3

공 간 명	주요 시설물	주요 내용
추모의 공간 -비 애	불천위사당 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중 내 행사인 불천위사당 제사를 개방하여 방문객에게 사당의 유래와 역사, 제례 의식을 보여줌</li> </ul>

[표 IV-5] 외암 위성 박물관 3 구상표

### 2.5 반 추- 위성박물관 4

공 간 명	주요 시설물	주요 내용
체험의 공간 -마을 전시물의 체험화	조선시대 전통 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마을 내 전통 정원을 모방하여 조성</li> </ul>
	각종 체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내 각종 문화 자원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li> </ul>
	조망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객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수변공간 조성 → 관람후의 감정 정리(휴식,즐거움 선사)</li> <li>• 장래 유보공간으로 활용</li> </ul>

[표 IV-6] 외암 위성 박물관 4 구상표

### 2.6 기타

공 간 명	주요 시설물	주요 내용
서비스 공간 -휴식 및 편의시설	주차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객을 위한 주차시설</li> </ul>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입구와 마을 내 곳곳에 배치</li> </ul>
	관람객 휴식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 내 곳곳에 관람객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li> </ul>

[표 IV-7] 외암 위성 박물관 5 구상표

## 제 3절 시설배치 계획

### 3.1. 마을 경관 정비계획

#### 3.1.1 국도 ~ 마을 입구

- 39국도에서 터널진입부의 정면성 강화
  - 전통성 부여된 안내판, 미니초가모형, 캐릭터
- 터널에서 마을 입구까지 전통적 경관조성
  - 터널내부에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물 설치
  - 저차거리 조성
  - 주차장 → 민속관 → 저차거리 동선유도
  - 마을 입구의 전통경관 저해요소(현대적 건물, 표지판) 철거, 이전
- 정려각 및 장승 주변 정리
  - 마을 입구부의 정면성 강화
  - 진입 시 물레방아, 소나무 숲의 시선확보

#### 3.1.2 반석교 ~ 느티나무

- 현 공중화장실 정비
- 관리사무실철거, 관람객 휴식위한 공간 조성
- 입구 정자, 반석정 주변정리
- 안내판 철거, 정비
- 소나무 숲 보존 및 시야확보
- 미술전시관의 용도이전 : 전통성 있는 예술품 전시관으로 전환

#### 3.1.3 느티나무 ~ 교수택

- 옛 새마을회관 철거
- 디딜방아 주변정비 → 체험가능 시설로 변환
- 교수택 앞 대나무 숲, 연못(물텀병)연계하여 쉼터 조성
- 공가 이용하여 공중화장실로 이용 : 전통 화장실 재현

#### 3.1.4 느티나무 ~ 사당

- 마을 내부수로 정비 : 물흐르는 친수공간 조성
- 공터정비 : 마당놀이, 휴식 공간 조성
- 공가를 온돌 체험관으로 이전
- 사당 주변 정비

### 3.1.5 사당 ~ 정자나무 ~ 관리사무소

- 사슴사육사를 관람시설의 기능할 수 있게 정비
- 정자나무 주변 쉼터 조성
- 친환경적 하천정비 : 친수공간, 빨래터 복원
- 다리를 전통성 부여된 형태로 정비
- 연못을 정비하여 가옥내부 정원 재현
- 전통농사방식 재현한 땅 마련하여 관람객의 체험 참여 유도

## 3.2. 건축물의 정비

### 3.2.1 기본원칙

- 신축 및 개·보수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노출되지 않는 내부, 불편한 생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원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된 규정을 적한다.

### 3.2.2 마을 내외부

정비계획의 기본원칙은 지침에 따르되 상세한 내용은 ‘마을보존위원회’에서 규정한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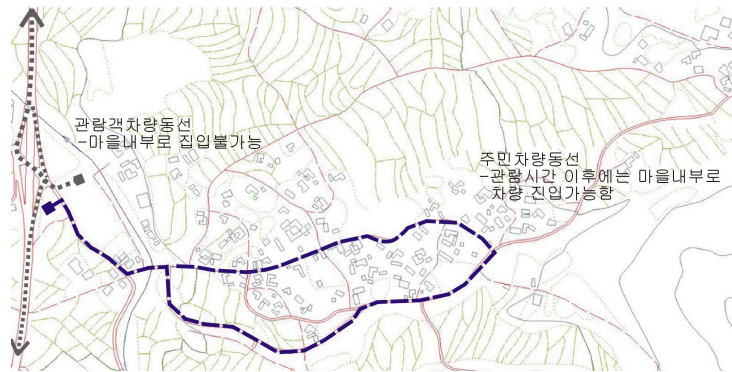
- 마을 내부
  - 마을 내 구저시설을 보수 또는 개수 할 경우 원형보존을 원칙적으로 마을경관에 맞추어 전통양식으로 함, 실내공간은 기능과 용도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마을 내 주거시설 정비계획의 기존원칙을 바탕으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보존위원회’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협의 과정에서 효율적 방안 도출한다.
- 마을 외부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18조의 2에 의거 국가지정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이며, 이 구역에서는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 등 이와 유사한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얻도록 되어 있다.

## 4절 교통·동선 계획

본 대상지 내외의 모든 동선이 하나의 체계로서 각 기능들이 효율적으로 연결 되도록 지역간 교통망, 광역교통체계를 고려하여 진·출입 동선을 계획하였다. 또 관람객들이 혼돈을 느끼지 않도록 명확한 설정에 의한 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였다.

### 4.1 차량동선 체계 및 구조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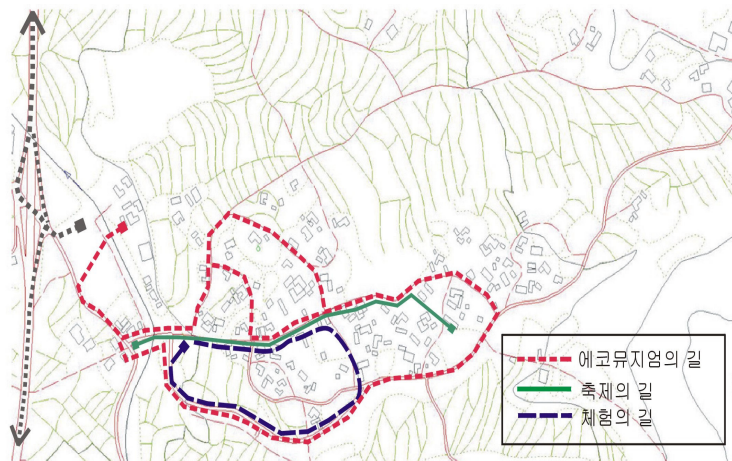
방문객과 주민의 주차공간 분리하였다. 관람시간내에는 차량을 통제하여 경관을 보전하고 관람시간이외에는 주민만이 마을내부로 차량 진입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IV-3] 동선 체계 및 구조 설정

### 나. 보행동선 체계 및 구조설정

방문객의 특성에 따라 보행동선(방문루트) 에코뮤지엄의 길, 축제의 길, 체험의 길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그림 IV-4] 보행 동선 체계 및 구조 설정

## 제 V 장 마케팅 및 운영계획

### 제 1절 기본방향

시설이용의 매력성은 자원의 독특성, 대상지로의 접근성, 교통수단의 다양성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획일성을 탈피한 다양한 자원의 개발, 용이한 접근 등을 기본으로 하여 4계절 이용 가능한 다기능의 관광지로서 운영되도록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시설의 매력성을 제고시켰다.

마케팅전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표적시장을 세분하고 표적시장별 상품서비스를 다양화 시키며, 대상지의 연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양한 정책 등을 계속적으로 펴나갈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였다. 전략의 기본 목표는 이용객 유치이므로 시설의 효율적인 홍보와 서비스에 의한 지속적인 이미지 쇄신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케팅전략은 시설과 인원의 적절한 이용,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조, 이용객과 사업주체간의 공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믹스의 도입으로 이용객 유치, 재방문 유도, 비수기성수기의 조절을 통한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여 고객만족을 극대화시키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특성 부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제 2절 마케팅 전략

#### 2.1 마케팅전략 선행요건

이용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정비하여 상품가치를 제고시키며 원활한 정보교환 체제의 구축 및 고객관리용 컴퓨터시스템 구축으로 시설의 정보화를 모색하였다. 관광지의 독창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고유의 시설, 상품,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며 단계적인 시장 확대를 위한 이미지 창출, 상품개발, 차별화 정책으로 시설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 2.2. 마케팅 세부전략

□ 표적 시장 확보

• 외암 마을 역사관광촌 표적시장 선정의 접근 구조는 <표V-1>과 같고, 표적시장 선정 내용은 <표V-2>와 같다

기능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교육 기능</li> <li>• 상업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양·보양 기능</li> <li>• 위락·놀이기능</li> </ul>
표적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 충남권 &gt; 수도권 &gt; 전국</li> <li>• 소득계층 :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국민층</li> <li>• 동반형태 : 가족단위 및 학교 등의 단체</li> <li>• 이용계층 : 청장년층(자녀동반), 학교단위의 수학여행 등</li> </ul>	
포지셔닝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락형 &gt; 휴양형</li> <li>• 관광자원 중심 &gt; 관광시장 중심</li> <li>• 정적분위기 &gt; 동적 분위기</li> <li>• 자연형 시설 위주 &gt; 인공형 시설 위주</li> <li>• 대중이용중심 &gt; 회원이용중심</li> </ul>	

<표 V-1> 외암 마을 표적시장 선정의 접근 구조

<표1-2> 외암 마을 표적시장의 선정

구 분	표적시장①	표적시장②
시장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및 충남권의 가족단위 이용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단위의 수학여행객</li> <li>• 단체 관광객</li> </ul>
이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가형 사계절형</li> <li>• 다양, 개성, 차별화</li> <li>• 가족단위 종합 휴양지</li> <li>• 온천관광지와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양·교육기능, 휴양기능</li> <li>• 참여, 활동적</li> </ul>
시설 및 서비스의 상세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가족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이벤트</li> <li>• 안락한 시설, 쇼핑, 오락, 체험 활동시설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레저, 휴양, 놀이 활동 및 문화 공간</li> <li>• 청소년을 위한 교육, 체험, 관람시설</li> </ul>
시설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야외문화 공간, 휴식공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형 시설</li> </ul>

<표 V-2> 외암 마을 표적시장의 선정

2.3. 마케팅 정보체계 구축

마을 내 원활한 이용을 위해 동 시설과 관련된 활동, 시설 운영 등의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센터와 마을 내 시설이용객의 설문·면담에 관한상시 조사체계를 구축하여 계절별, 월별, 시간대별 이용행태를 파악한다.

## 2.4. 홍보계획

홍보계획은 외암 마을을 개발한 후 시설 방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에 주력하도록 홍보대상, 홍보매체, 홍보방법을 구체화 시킨다. 단계별로 적정대상, 선정, 주체, 매체 방법 등을 강구하여 밀도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기관, 단체, 개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각 계층간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외암 마을의 특성을 홍보대상별로 적절히 세분하고, 자원, 유형별, 이용특성별, 기능별로 구분하여 홍보전략을 수립한다. 1차적인 홍보시장은 시장성이 큰 수도권 및 충청권, 2차적으로는 전국이어야 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시설의 차별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단체이용객(수학여행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요원을 확보하여 정예화된 방안을 강구하고, 매력도 창출을 위해 가장 차별화된 특징적인 자원 순으로 대상자원을 선택하고 이용 면에서는 접근시간, 이벤트 내용에 따라 선택한다  
이용대상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현실적인 매체를 선정하고, 특히 이용객 계층에 따라 이용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선정기준을 작성한다. 신문, 잡지, 간행물, 라디오, TV, 인터넷 등의 각각의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2.5. 종합안내체계의 구축

이용객, 시설물, 지역여건, 비용, 교통체계, 주변관광자원 등에 대한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안내판의 정비·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안내판의 설계는 독특한 기안, 색채를 선택하는 등 Land Mark를 구축하여 시각적 홍보, 안내효과를 제고시킨다.

## 2.6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외암 마을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인접한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함께 홍보하여 시너지(Synergy)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신정호 주변의 주요 관광자원은 온천으로 대표되는 도고온천, 온양온천, 아산온천이 있고 민속박물관을 비롯, 삼교호 유원지, 아산호국민관광지 등이 있다. 아산시와 인접한 천안시의 관광 매력물로는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아산시는 역사적인 유적지가 많은 곳으로 외암마을과 적절하게 통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

## 제 VI 장 결 론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통 민속마을로 하회마을, 성읍마을, 외암마을, 양동마을, 왕곡마을, 낙안읍성 등 6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 마을은 각기 다른 자원과 여건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현재 농촌테마마을로 개발되고 있다. 즉 어느 곳을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민속놀이, 농촌 체험이 행해져,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여느 다른 농촌 마을과 다를 바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이웃 일본에서는 ‘일촌일품운동’을 펼쳐 자기 고장만의 테마를 찾아내어 이를 활용하여 고장의 산물을 판매하고, 고장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 등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역의 전통적 자원의 소재를 활용한 특색 있는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외암 마을은 아직 관광이나 활용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되어 있는 곳이어서 그 전통적 자원의 훼손이 덜하다. 따라서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자원을 토대로 특정 테마를 창출하여 개발함으로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마을의 이미지를 확립할 경우 전통 민속마을로서의 외암 마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외암 마을을 양반 마을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이를 전통 사대부 마을로 재현하여 기존 민속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단위 문화재적 접근방식을 타파하여 전통이 묻어나는 마을로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현황분석 및 에코뮤지엄 개념 도입을 통한 마을 정비 및 보존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외암 마을은 양반마을이고 마을의 고샅(도로)은 나뭇가지가 뻗어있는 형상이다. 마을의 중심으로 안길이 있고 안길을 중심으로 고샅이 형성되어 있어 마치 나무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대부의 일생을 뿌리에서부터 뻗어가듯 길을 따라 전개하기로 한다.

둘째, 개념 도입 대상이었던 에코 뮤지엄은 코어 뮤지엄을 중심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듯 위성박물관이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적용해 외암 마을이라는 장소에 사대부의 일생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공간을 구성하고, 마을 주변에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둠으로 관람 후 체험을 하게 한다.

셋째, 반촌 마을이라는 마을의 특성을 살려 전통 사대부의 일생을 나무가 뻗어나가는 형상에 비유하여 그 출생 → 성장 → 삶 → 죽음의 순으로 전개한다. 여

기에 전체적인 전개를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적용하여 해나가며, 특히 ‘삶’ 부분은 마을의 대표 고택을 위성박물관으로 활용하여 개발함으로, 마을의 중심지로 중점 개발하기로 한다.

에코뮤지엄 개념 도입시 외암마을은 마을 내·외부로 이원화되어 개발된다. 마을 내부에서도 마을의 과거를 보여줄 수 있는 고택과 고정원 등의 문화유적들이 분포되어 있는 공간은 개발을 최소화하되 복원 및 탐방의 공간으로, 현재 주민의 생활공간인 논/밭은 농촌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농촌체험의 공간으로 개발된다.

또한 진입로를 포함한 마을 외부에서는 주요 건축물, 식재 및 정원 문화를 모방하는 등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마을 내에서 탐방했던 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마을 내부를 지원해주는 기반지원시설 공간으로 정비된다.

본 연구는 에코뮤지엄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에코뮤지엄에 대한 관련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들의 이해를 높여, 대내적으로는 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안으로써의 에코뮤지엄을 인식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화 시대에 대응 가능한 향토문화상품의 터전을 마련하여 민속마을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 새로운 관광수요의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하고 있다.

즉 민속마을에서의 에코뮤지엄의 개념 도입은 개발을 최소화함으로써 적은 돈을 투자하고도 환경 보존의 범위 하에서 민속마을의 분위기를 심화시키며, 그 운영의 주체가 지역주민이 됨으로 인해 주민 본인에게 경제적 실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상이 반영된 주민참여의 방식의 개발이 주민들 스스로 외암마을의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당위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주민참여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학위논문]

- 강동진 (1997), 경주 양동마을의 해석과 보전방법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영숙 (2003), 에코뮤지엄 개념도입을 통한 박물관의 새로운 발전가능성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승화·김용기(2000), 외암리 민속마을의 수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Vol.18 No1)  
 박찬용·김한배 (2003), 산운마을의 역사문화 경관 복원 및 정비, 한국정원학회지 (Vol.21 No4)  
 최재희 (2002), 에코뮤지엄 개념을 도입한 공예박물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연구보고서]

- 김성진 (2001), 고가·중택·전통마을의 보전적 관광자원화 방안, 한국 관광연구원  
 김홍남(2001), 박물관 밖의 박물관:미국 윌리엄스버그 역사민속촌 사례 『21세기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방향과 과제』  
 농촌경제 연구원 (200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농림부  
 농촌생활연구소(2003), 농촌전통네마마을의 녹색관광자원 이용연구이왕기 (2001), 외암리 민속 마을 보존 계획 고찰, 건축역사 연구회  
 철암지역 건축도시작업팀(2001), 철암, 그 미래를 위한 제안  
 최정필(2001), 스웨덴 스칸센 박물관 『21세기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방향과 과제』  
 충남발전연구원(2001),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충청남도  
 한경구(2001), 진짜보다 진짜같이:메이지무라 박물관 『21세기 국립민속박물관의 발전방향과 과제』  
 환경부 (2004), 지속가능한 지역바전을 위한 환경거버넌스 구축방안, 환경부

### [단행본]

- 다니엘지로디·알리부이에 (1996), 김혜경 옮김, 박물관이란 무엇인가, 화산문화사  
 성혜영 (2004), 박물관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휴머니스트

### [정기간행물]

- 국립현대미술관 (2001), 프랑스 아르트네 시골장터박물관, 국립현대 미술관  
 월간디자인(2000), 미국의 전통문화의 근원 셰이커 빌리지  
 전홍준,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 운동, 도시와 빈곤 35호  
 新井重三(1997), 에코뮤지엄실천서론, 일본에코뮤지엄 연구회(NO1)  
 Alain Joubert, 프랑스로부터 일본으로 : 에코뮤제, 일본에코뮤지엄 연구회(NO1)